

안녕하세요, 31회 법무사 합격자 정세진입니다.

인강 수험생이며 기득권으로 합격하였고, 총 수험기간은 박문각 커리큘럼에 맞춰 2년 2개월이나, 1차 시험 직후 3개월간 쉬고 24년 12월부터 2차 공부를 시작하여 실 수험기간은 1년 11개월입니다.

제 합격 수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준비 중인 분들은 많을 것 같아 조금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개인적 기록의 의미를 두어 써보겠습니다.

1. 이력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고, 2017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 19년도부터 중개업을 해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스스로 공부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살았으나, 수능 점수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내다 나름 해본 것이 공인중개사 준비가 처음이었습니다.

2. 계기

중개업 과정에서 굉장히 급변하는 정책과 시장 흐름에 따른 수입의 변화가 하나의 불안 요소였고, 마침 전세사기가 난리이던 때에 제가 중개업 고객분들의 물음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저 또한 법무사라는 직업이 부동산 등기 외에 무엇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고객분들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률상담을 받으면서 내용증명부터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등을 경험하며 관심을 갖고 법무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여건

30대 중반의 외벌이 가장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수험생활을 시작하여 벌써 두돌이 넘었네요.

시험공부 하겠다고 양가에 육아나 금전적 도움을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하고, 아내도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겪어내느라 전업 수험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1차와 2차를 한 번에 준비하는 건 계획하지 않았고, 중개업을 병행하다가 31회 2차 2순환부터 중개활동을 잠시 접고 전업 수험생활을 했습니다.

육아 병행, 직장 병행, 또는 육아와 직장 모두를 병행하시는 분 등 정말 많은 각각의 환경이 있을텐데, 저는 외벌이이기 때문에 주양육자가 아니었으며 자영업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완전히 얽매이지도 않는 조금은 부담이 덜한 육아+직장 병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중개업의 특성상 고객 응대가 불규칙적이고, 아내 혼자 육아를 오롯이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가 돌이 지나고, 중개업을 쉴 때까지는 규칙적인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고, 꽤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부의 목적을 포함한 모든 것이 결국은 가족을 위한 것임을 매번 상기하면서, 수험생활에 매몰되어 육아의 부담을 아내에게 가중시키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경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30회 1차 (23년 9월 ~ 24년 8월)

과목명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민사집행,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점수	58	76	54	68

평균	64
합격선	60
합격여부	합격

1) 강사

헌법 : 이재영 법무사님
 상법 : 하영태 박사님
 민법 : 이혁준 교수님
 가등 : 김지후 교수님
 민집 : 김지후 교수님
 상등 : 김경중 법무사님
 부등 : 김기찬 법무사님
 공탁 : 이천교 법무사님

2) 공부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가는 가장 안정적인 루트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합격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은 박문각을 선택하였고, 이미 수년간 다져놓은 학원의 커리큘럼을 굳이 의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원에서 제 공되는 교재나 참고서 외에는 따로 공부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기억력의 한계와 그 휘발성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암기와 이해에 압박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러운 이해와 암기를 선행한 뒤 마지막에 스피트를 내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접근 방법과 공부 방식이 대부분일 것이고, 강의 중에도 각 강사님들께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추천하기에 특별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적어보자면,

9월에 시작한 기본강의(1순환)는 취지에 맞게 강의 내용과 용어 이해에 초점을 두어 따로 필기나 교재 밑줄 등 없이 과목별 1.5~2배속으로 그날그날의 강의를 일과 후나 육퇴 후에 밀리지만 않게끔 유튜브 보듯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2월에 시작한 집중강의(2순환)에 들어서 교재에 키워드 체크 및 간단한 필기를 해주었으나 마찬가지로 그날의 강의만 배속으로 밀리지 않게 수강하였고, 예습이나 복습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집중강의 시작 전인 1월에 아이가 태어나 일과 육아로 인해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보강으로 인해 진도 쳐내기도 생각보다 빠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중강의까지는 따로 예복습이 없었기에 강의 듣는 시간이 하루 공부의 전부여서 보강이 있는 날은 5~6시간, 그렇지 않은 날은 3시간 내외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한 5/7부터 강의는 듣지 않고, 과목의 연계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법-상등-부등-민법-민집-공탁-헌법-가등 순으로 과목별 회독을 시작하였으나 분량이나 중요도, 진도가 달라 순서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문각 모의고사는 3, 4, 5회만 응시하였는데, 1, 2회는 개인적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의미 없다 판단하여 미응시하였고, 3회 모의고사는 상법과 민법 2과목만 응시 후 퇴실하여 81명 중 80등, 4회 모의고사는 상법, 민법, 민집, 상등 4과목만 응시 후 퇴실하여 88명 중 75등, 5회 모의고사는 전 과목 응시하여 106명 중 26등의 성적을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과목의 준비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치면 되는 것이지 내 공부 순서로 인해 아직 준비하지 못한 과목에 대해서 모의고사로 불필요한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미 1차를 경험해본 수험생이나 전업 수험생들에 비해 준비가 늦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여 조급함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05/07 ~ 06/23(3회 모의고사)

상법, 민법, 민집 기본서, 부등 요약서 1회독 및 밑줄 정리
상등, 공탁 요약서 훑듯이 1회독
상법, 민법, 민집, 부등 2회독

06/24 ~ 07/14(4회 모의고사)

헌법, 가등, 상등, 공탁 객관식 1회독

07/15 ~ 08/04(5회 모의고사)

상법, 민법, 민집, 부등 객관식 1회독
상법, 민법, 민집, 부등 3회독
전과목 객관식 2회독
기출 등 문제풀이 반복

08/05 ~ 시험

2째주는 가등, 공탁, 상등, 헌법 순으로,
3째주는 부등, 상법, 민집 순으로,
4째주는 민법을 민총, 채총, 채권각론, 물권, 친상 순으로 마무리하고,
마지막주는 5회 모의고사를 제외한 1, 2, 3, 4회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회씩 시간에 맞게 치러보며 가등, 공탁, 헌법, 상등, 상법, 부등, 민집 순으로 각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3) 시험후기

훌륭한 점수로 1차를 합격한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없는 시간을 잘 분배하여 계획한 공부량을 소화한 것에 만족하였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저만의 암기장을 과목별 A4 한 장 내외로 정리하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나와준 문제가 몇 개 있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을 본지 시간이 꽤 지나 공부하며 겪었던 고충이나 감정은 많이 사라졌고, 각 과목별 강사님들의 강의 스타일이나 공부내용도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약간이나마 수험기록을 해

두었던 것이 이제와 합격수기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네요.

1차는 아무래도 누가 더 빠르게 읽고 빠르게 짚어내는지를 가르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본서를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풀이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눈과 손의 속도를 올려놓는 것이 1차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 30회 2차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13.25	0	0	0	0	0	0

평균	3.3125
합격선	52.43
합격여부	불합격

30회 2차 시험은 역시나 개인적 시간 관계상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했기에 시험장 분위기만 살필 생각으로 다녀왔고, 2차 시험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른 채 써본 민법의 점수가 궁금하여 마지막 과목까지 백지를 잘 내어놓고 왔습니다.

쉬는 3개월 동안 육아에 조금 더 시간을 보태고, 11월엔 아이와 첫 여행을 다녀와 12월부터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 31회 2차 (24년 12월~25년 10월)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41.5	21	26.75	37.25	16.5	37	26.75

평균	51.687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1) 강사

민법 : 이혁준 교수님
 형법 : 오상훈 교수님
 형소 : 노신 변호사님
 민소 : 이혁준 교수님
 서류 : 이천교 법무사님
 부등 : 김기찬 법무사님
 등기 : 김기찬 법무사님

2) 공부방법

2차는 12월 5일에 예비순환 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해서, 진도를 따라잡을 때까지 하루에 2일치인 8강의 씩 배속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강시간 외에 예복습에 할애할 시간은 역시 없었으나, 다행히 1순환 시작 전까지 진도는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험기간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순환 과정 때는 중개사업장 정리와 가족여행 등에 조금 더 시간을 내면서 당일의 강의와 약간의 복습 정도만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차 수험 과정에서 기본서 회독과 모의고사 응시를 하지 않았는데, 2순환에 들어서며 모의고사를 3회 정도 치러본 결과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데다 굳이 답안지에 펜을 눌러 써가며 힘을 빼야할까 하는 생각에, 그 시간을 강사님들이 올려주시는 모범답안을 저만의 방식으로 단권화하여 암기하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단권화는 A4를 반으로 접은 소책자 형태가 될 수 있게끔 타이핑하여 정리하였는데, 과목별 모범답안을 내 문체에 맞게끔 문장을 다듬어 한 눈에 답안 내용이 들어오도록 정리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방법으로 운이 좋게 합격했으나 혹시 이 수기를 보시는 분들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치러보질 않으니 알고 있는 지식을 스스로 끄집어내어 구성해보는 능력이 길러지질 못했고, 시간에 쫓기면서 답안작성을 해보질 않아 시험 당일 내 글씨가 이렇게나 날라갈 수 있다는 것에 큰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수중이라 다른 합격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모의고사를 힘들게라도 해 내시는 분들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저는 정말 모의고사만 달달 암기했다가 운 좋게 10명 증원의 혜택을 보고 합격한 게 아닌가 싶어 수기를 쓰면서도 아찔한 마음입니다.

2, 3순환에 들어서는 일을 쉬게 되면서 낮과 밤을 나누어 공부했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패턴으로 시험 전까지 이어갔습니다.

12~18시 낮 공부 / 18~24시 육아, 집안일, 휴식 / 24~06시 밤 공부 / 06~12시 잠

공부시간은 강의와 단권화가 전부였지만, 모범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체에 맞게 다듬으며 분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중요 키워드나 내용이 변형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기본서를 참조해가며 정리하느라 꽤 많은 시간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에 민법 3순환 강의를 있었는데, 이혁준 교수님의 민소나 민법 2순환 모의고사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년도 민법 3순환 과정으로 9월에 미리 단권화를 마무리 해두었습니다.

덕분에 10월 한 달간은 마무리된 전과목 2, 3순환 모의고사 소책자를 6회독 까지 반복 암기할 수 있었고, 회독에 속도가 붙어 각 시험 전 날은 과목별 3회독 씩도 할 수 있었습니다.

3) 시험후기

공부의 방법은 정말 각양각색일 것이나, 앞서 말했듯이 모의고사만을 믿고 기본서를 통한 시하거나 모의고사를 직접 치러내지 않는 것은 무모한 도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외에는 실제 시험에서 목차도 제대로 잡지 못했으며, 습관이 되지 않아 '판례는'이라는 문구도 거의 없이 바로 적어내기 바빴습니다.

다만 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 방법이 운 좋게 통했기에 이렇게 수기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2차 공부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량의 압박에서 오는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펜으로 답안 연습하는 것이 힘들까봐 타이핑을 쳤음에도 손목이 아팠고, 수험기간이 2년을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늘어가는 몸무게에 비해 근육은 빠져서 체력은 나날이 떨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시험 보기 전 월요일에 온가족이 독감에 걸려 급하게 수액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목금토 3일은 약, 커피, 에너지드링크에 온 몸이 절여져 비몽사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초안작성도 없어서 근거뿐만 아니라 결론도 뭐라고 썼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내가 쓴 답을 모르니 강사님들의 답안이 올라와도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좋았습니다.

7. 마치며

수험 중에도 내가 아니면 누가 붙냐는 마인드로 공부했고, 시험을 보고 나와서도 민법만 면과락하면 합격이겠거니 했으며, 합격자 발표까지도 내가 수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증원의 혜택으로 합격했네요.

수험생활 동안 법시모 카페에서 눈팅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꽤나 하고 있어서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수기에 대해 수험기간을 줄인다느니 광고를 받는다느니 하는 글들이 많은데, 정말 합격을 위해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혹여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만 잘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은 현재의 수험생분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한 곳 차이로 운 좋게 합격했을 뿐입니다.

그 기쁨마음에 자신의 수기를 기록함에 있어 약간의 과장은 몰라도, 거짓을 보태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험생분들께서도 합격하면 어떤 수기를 적을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가볍게 읽어주세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지금 가감 없는 솔직한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과 수험생분들 모두 건승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